

1833-9030
금연상담전화 | 1833-9030
 전라북도 익산시 무왕로 895(신동동 344-2) 한광대학교병원 5층 1호실
 TEL: (063) 859-2400 ~ 2410 FAX: (063) 859-2414

전주매일

비수술적 척추관절 류종치료 전문
세인 신경외과 의원
 원장 박경문 ☎ (063)220-6600
 전주시 완산구 효자 천변 2길 6번지

2017년 10월 26일 목요일 (음 9월 7일) 제1915호

www.jjmaeil.com

대표전화 (063)288-9700

“억만년 살아나갈 내고장”... 전북의 노래 제창



25일 전주한국소리문화의전당에서 제37회 전북 도민의 날 행사가 열린 가운데 송하진 도지사가 전북 자존의 시대 선포식을 연 뒤 합창단 등과 전북의 노래를 부르고 있다.

도민의 날 기념식 ‘전북 자존의 시대’ 선포

송 지사 “천년 열어갈 자존의 힘으로 키우자” 강조
자랑스러운 전북인 대상 시상식도 함께 진행

“천년을 이어온 자긍심으로 지금부터 미래를 향해 힘차게 나아갑시다. 도민 여러분과 굳게 손 마주잡고, 전북 자존의 시대를 선포합니다!”

전북도는 25일 한국소리문화의전당 모악당에서 도내 14개 시·군 기관·단체장을 비롯해 전북인대상 수상자, 출향도민, 기업체 대표 등 2,000여명의 도민이 참여한 가운데 열린 제37회 전북 도민의 날에 ‘전북 자존의 시대’ 공식 선포식을 갖고 도민들과 함께 풍요로운 전북이라는 꿈을 이뤘다.

송하진 도지사는 이 자리에서 ‘전북 자존의 시대 선포문’을 통해 “전북 뭉치기에 뜨거웠던 기세를 타고, 이제 전북 자존의 시대를 활짝 열어야 할 때”라면서, “천년을 이어온 소중한 역사를 천년을 열며 갈 자존의 힘으로 키워가자”고 전북 자존의 시대의 선포 의미를 밝혔다.

또 “전북 자존의 시대를 활짝 열어갈 주역은 바로 우리 전북 도민”이라며 “도민 여러분과 굳게 손 마주잡자”고 강조했다.

이날 행사에서는 도민의 날을 맞아 각계각층의 생생한 현장 목소리를 담은 도민 대표와 주요 인사들의 축하 영상메시지가 이어져 도민들의 의지와 역량을 결집하는 시간도 가졌다.

이어 나눔분야 강칼라 수녀 등 전라북도 지역의 명예와 자긍심을 드높이고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한 공로를 기리는 ‘자랑스러운 전북인 대상’ 7개 분야 수상자 시상식도 진행됐다.

〈관련기사 14면〉

이날은 ‘전북 자존의 시대’ 선포에

함께 14개 시·군 주민 및 출향도민 대표, 스카우트 대원, 어린이 등이 함께 합창한 ‘전북의 노래’가 더욱 우렁차게 울려 퍼졌다.

한편, 성악가와 어린이합창단이 꾸민 ‘아름다운 전북’이란 주제로 식전공연을 펼치고 무용단이 2023세계 쎬버리 새만금 유치기념 축하의 의미와 도민들의 안녕과 순항을 기원하는 ‘생동하는 전북, 내일을 보다.’는 작품으로 행사를 열었다.

이밖에도 ‘전북방문의 해’ 홍보 및 도민과 함께하는 축하무대로 기념행사의 피날레를 장식했다.

도민의 날은 온 도민의 참여 속에 한해의 풍년을 기뻐하고, 도민의 단합과 지역사회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1981년 조례로 매년 10월 25일을 ‘도민의 날’로 지정했다.

/김진성 기자

매일 INDEX	
6면 - 공공부문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12면 - 무형문화재대전 26일 개막

공동주택 계약원가 현미경 심사

공공부문 실시 중 ‘계약심사제도’ 민간분야로 확대
전주시, 내달 1일부터 무료원가 자문서비스 실시
건축·토목 등 전문가 구성... 자부담 실시 사업이 대상

전주시가 건축, 토목 등 각계 전문가와 함께 공동주택에 거주하는 시민들의 관리비 절감과 부실시공 예방을 위해 계약원가를 간간하게 따진다.

시는 오는 11월 1일부터 공동주택에 거주하는 시민들에게 경제적인 도움을 주고, 보다 체계적인 사업원가를 구축하기 위해 공공부문에서 실시하고 있는 ‘계약심사제도’를 민간분야 공동주택으로 확대하는 무료 원가 자문서비스를 실시한다고 25일 밝혔다.

계약원가 자문서비스는 공동주택단지에서 시행하는 각종 사업의 원가를 심사해 주는 것으로, 건축·토목·기계·전기·통신·조경·용역 등 전문가 11명으로 구성된 전주시 공동주택 계약원가심사 자문단이 각종 공사와 용역 발주, 물품 구매시 비용산출의 적정 여부를 검토한다.

자문대상은 공동주택에서 자기부담으로 실시하는 각종 사업으로, △

공사는 5,000만원 이상 △용역 물품 2,000만원 이상은 공동주택관리법령 및 전북도 공동주택 관리규약준칙에 따라 의무사항이며 기타는 임의사항이다.

자문을 원하는 공동주택단지는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자문 여부를 결정하고 아파트 관리주체가 신청서 및 설계도서 등을 갖춰 시청 건축과에 신청하면 된다.

시는 자문대상 여부를 확인해 해당 분야 전문위원에게 의뢰해 자문결과를 공동주택단지에 통보하게 된다. 자문결과는 자문신청일로부터 2~3주 이내에 받아볼 수 있다.

시는 계약원가 자문서비스를 통해 입주민에게는 부실시공 예방과 관리비 절감 등 경제적 이익을 주고, 입주자대표회의와 관리주체는 공신력 있는 시청의 원가자문으로 적정원가에 대한 의구심을 해소하는 등 갈등 요인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김민근 기자

“사법부 개혁 소명 바친다”

김명수 대법원장, 취임 한달 맞아



이러며 “취임사에서 말씀드렸듯이 ‘좋은 재판’ 실현을 최우선의 가치로 삼아 사법부가 국민으로부터 진심으로 사랑받고 신뢰받을 수 있도록 통합과 개혁의 소명을 완수하는데 제 모든 열정을 바치고자 한다”고 밝혔다.

이어 “지난 인사청문회 등을 통해 제시한 사법개혁의 과제인 법관의 내·외부로부터의 확고한 독립, 적정하고 충실한 재판을 위한 인적·제도적 여건 마련, 전관예우 근절을 통한 국민의 사법신뢰 제고, 상고심 제도의 개선, 재판 중심의 사법행정 실현 등은 모두 ‘좋은 재판’을 실현하기 위한 필수불가결의 과제들”이라고 강조했다. /뉴시스

UNESCO
 United Nations Educational, Scientific and Cultural Organization
 World Heritage Site in the Republic of Korea
 익산 미륵사지 왕궁리유적
 유네스코(UNESCO) 세계유산 등재

시민이 행복한 품격도시 익산

세계가 주목하는 명품도시 “익산”
 31만 익산시민과 함께
 열린의회, 일하는 의회로
 그 꿈과 희망을 실현해 나가겠습니다.

익산시의회
 IKSAN CITY COUNCIL